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박명림 지음



135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박명림

고려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및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옌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지역학 협동과정 교수.

주요 저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I,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戦争と平和: 朝鮮半島 1950》, 《다음 국가를 말하다》 등.

주요 수상경력: 〈월봉 한국학상〉(1997), 〈90년대의 책 100〉(1999),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03), 〈한국의 책 100〉(2005),

〈동아시아 100권의 책〉(2009) 등.

나남신서 1554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2011년 6월 15일 발행

2011년 6월 15일 1쇄

저자_ 朴明林

발행자_ 趙相浩

발행처_ (주) 나남

주소_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출판도시 518-4

전화_ (031) 955-4600 (代)

FAX_ (031) 955-4555

등록_ 제 1-71호(1979.5.12)

홈페이지_ <http://www.nanam.net>

전자우편_ post@nanam.net

ISBN 978-89-300-8554-0

ISBN 978-89-300-8215-0(세트)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서문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박 명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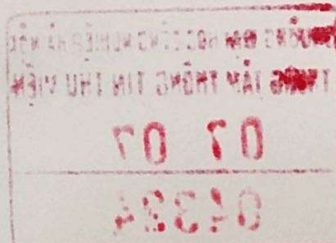
나남
nanam

History, Knowledge, and Society

Interpretations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wangju Uprising

by

Myung-Lim Park



nanam

· 서문

우리는 왜 과거에 대해 말해야 하는가?

I.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를 왜 연구하는가? 이 물음은 곧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와 동일하다. 21세기 초두 오늘의 세계와 한국이 직면한 근본 문제는 대안의 부재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사유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의 빈곤은 곧 지성의 빈곤을 말한다. 빈곤의 기저(基底) 원인은 미래를 향한 시나리오 제시능력의 미흡 때문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있다. 과거를 바로 보지 못할 때 바른 미래는 오지 않는다.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과거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건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전쟁 학술논문에 대한 공방과 노무현 정부 시기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이념갈등,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의 일련의 과거사위원회 폐지 논란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깊이 과거유산에 긴박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유리된 이념적 주장에 근거해 진행되는 논쟁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식은 지금 이성적 계몽 대신 이념적 혼돈을 강화하는 역할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

권력과 언론을 포함하여 매개영역의 역할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이성적 소통을 앞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물론 학문공동체에서조차 지식의 정당한 소통구조가 빈약한 한국사회에서 매개영역의 왜곡역할은 이성에 기초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물론 공론형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특히 언론이 주도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 우선과, '진실'에 대한 '이념' 우선의 현상은 이제 객관성과 정당성을 판별하기조차 힘든 병리적 수준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이해 및 '현실' 진단의 왜곡이 '미래' 비전을 축소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미래는 지금 과거에 저당 잡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는 능력만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과거를 특정 이념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곧 미래를 가두는 것과 같다. 과거를 특정 정부의 관점에 가두려는 것은 더욱 바보스런 짓이다. 그것은 고작해야 자기정부의 임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자유와 창의에 바탕해 창조되는 미래 비전은 그 이념과 정권의 시한 내로 축소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정권을 넘는 지식과 이성의 자유로운 소통 없이는 바람직한 미래 건설은 어렵다. 권력과 이념에 의한 진실과 이성의 왜곡은 역사 이해를 넘어 미래 창조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성이 현실비판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 역시 단순한 과거 이해를 넘어 우리의 미래창조 능력과 지체의 크기를 보여주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의 자장(磁場), 영향, 지속의 범위를 알게 되면 이 말이 갖는 실제 무게를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전쟁을 우리가 어떻

게 소화하느냐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과거 이해와 미래 창조의 품새를 측량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이념 굴레에 이 전쟁의 이해를 가둔다면 우리는 자유와 진리가 넘실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정의로의 행진도 물론 불가능하다.

II.

크게 부족하지만 필자는 그동안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첫 번째 두 권의 책(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에서는 “한국전쟁은 왜, 그리고 어떻게 왔는가”를 썼고, 두 번째 책(한국 1950: 전쟁과 평화)에서는 “한국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썼다. 물론 그 중심은 우리의 개인적 집합적 삶의 문제였다. 현실이해와 학문분석의 준거는 필자에겐 언제나 민중(시민), 민족, 국가, 세계로 나뉜다. 그 중심은 항상 현장을 살고 있는 사람 — 집합적 존재이건 또는 구체적 개인이건 — 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하는 이론적 문제들은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외양, 또는 조건의 내용을 나누어 살펴피려는 사고의 부분적 의지처를 넘지 않는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궁극적 존재가치는 바로 사람의 문제를 살피는 데 있다. 왜냐하면 외양인 그 의지처를 버리더라도 알맹이로서의 삶은 남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전쟁 3부작의 마지막 책이 될, 결과와 유산과 영향을 다룰 “한국전쟁은 무엇을 남겼는가”를 분석한 연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1980년 광주항쟁 이후 국내의 한국전쟁 연구경향과 전망, 과제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한 글을 출간한다. 광주항쟁에서 현재까지 이 주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지적, 이념적, 사회적, 사상적 궤적을 통해 그들 각 차원의 변화의 편린을 읽어내고 싶은 것이다.

즉, 이 책은 '80년 광주' 이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의 한국전쟁 연구와 이해의 궤적을 한국과 세계의 변화를 유념하며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이 일반적 학지사(學知史)나 연구사와 크게 다른 것은, 학계 내부의 논쟁과 시각변화를 넘어 학문과 사회의 변화를 함께 고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역사를 고리로 지식과 사회의 대화방식, 또는 사회와 역사의 대면방식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사회에는 한국과 세계가 모두 포함되어 사회주의 붕괴나 북한식퇴, 한국의 민주화와 같은 거대변화에 따른 한국전쟁 이해의 변천을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세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전쟁 이해와 연구의 변화풍경이 이 책의 중심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전쟁 연구의 사회지식적 검토의 의미를 갖는 반면, 모든 주제와 쟁점을 속속들이 해체하고 검토하지는 않은 하나의 소묘에 해당한다. 독자들은 학자와 주제와 목록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계의 내면모습은 물론, 주제와 관점, 영역과 수준의 심대한 변화에 약간은 놀라게 되리라고 믿는다. 즉, 한국전쟁 연구가 사회변화에 조용하며 이토록 심대하게 변화하였나 하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세계 이론과 한국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문의 나태함과 지루함 역시 발견하게 되리라 믿는다.

조금은 색다른 시도인 사회지식적 검토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세 범주를 포괄하려 한다. 첫째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과거와 미래의 관계, 둘째 학문과 현실, 역사와 지식, 한국연구와 세계의 관계, 셋째 과거 이해와 미래 창조, 역사 이해와 역사 창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이 세 차원에 대해 한국전쟁을 소재로 사회지식적 개입을 통해 학문과 사회의 만남의 궤적을 정리

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의 소재는 한국전쟁 연구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창(窓)으로 삼은 두 카테고리들, 즉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학문과 현실, 역사와 지식, 역사 이해와 미래 창조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필자의 내면에서 진행된 이들 두 범주 사이의 대화의 소산인 것이다. 역사와 사회에서의 지식의 역할을 반추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전쟁 연구를 진행하며 필자는 위의 두 범주 사이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이성적 사회를 꿈꾸어 오곤 했다.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능할지 오늘의 현실은 너무 큰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나, 이 꿈은 역사와 사회문제를 공부하고 우리 공동체의 바람직한 미래대안을 고민해 온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소망이기도 하다.

III

이 연구는 긴 시차를 두고 출간된다. 학위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학위논문을 위한 기존의 국내외 한국전쟁 연구 정리에서 출발하여(1988~92년), 국내연구에 한정하여 하나의 논문으로 제출되고(1997년 《한국사론》 27집), 이후 출간을 위한 잠정 탈고 및 발표를 하였다가(2003년 한국전쟁연구학회, 2005년 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그 후 폭발적인 연구의 분출로 인해 다시 미루어 두었다가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제야 최종 정리를 마치게 되었다. 이토록 미루어진 이유에는 2005년 이후 계속되는 주요 연구의 출간과 연구기구의 등장도 관련이 있었다.

정직하게 말해 이런 종류의 저술은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주제연

구에 비해 너무도 많은 물리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서 예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다. 또 한국전쟁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는 필자 자신이 이러한 저작을 직접 집필할 필요는 없다며, 후학들의 과제로 맡기라며 말리는 학자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한국학계의 현실에서 전공과 주제와 시각을 넘는 학제적이며 균형적인 안내가 꼭 필요하다며 재촉하는 요구도 적지 않아 출간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부족한 대로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안내역할의 추구가 이 책의 첫 번째 출간 이유이다.

나아가 이 책을 하나의 출발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한국전쟁을 넘어 다른 학문주제에 대해서도 역사와 지식, 지식과 사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토론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출간의 두 번째 이유이다. 좁은 학문 내부의 관점의 차이나 논쟁, 대화, 연구사 정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문과 사회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을 위해 이 시대의 지식(인)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성찰에 바탕해 우리의 미래가 바르게 디자인될 수 있는 쪽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끝으로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의 문제의식을 갈무리하는 동시에 한국전쟁 영향의 연구를 위한 자기반성과 중간정리의 의미를 담는다. 지난 30년의 한국전쟁 연구를 정리하면서 필자는 자신의 한국전쟁 연구가 자료와 이론과 분석과 깊이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끄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제기한 문제와 비판은 대부분 필자 자신의 기존연구와 다음 연구를 향한 자기비판과 자기각오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이 책을 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이다. 대전쟁(大戰爭) 60년이 지나도록 통일과 평화는 고사하고 화해의 보편적 준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쟁 연

구에 대한 엄중한 자기질책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특정분야의 지식의 흐름과 연구주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함께 검토한 저작인 만큼 적지 않은 부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판과 지적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많은 질정을 기대한다. 필자는 이 책을 포함해 앞으로 ‘사회인문학’(social humanities)이라는 표제 아래 학문의 사회적 역할, 또는 지식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와 언설을 담은 책자들을 내놓으려 한다. 따라서 이 책자는 필자의 ‘사회인문학’ 구상의 한 사례를 구성한다. 또한 장차 연구하려 여러 분야의 자료를 모으는, 건국 이래 현대한국 사상의 구조와 논리를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이 한국전쟁 연구의 초기 안내역할이라도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또 한국사회의 이성적 사유와 인간적 발전을 꿈꾸는 젊은 세대에게 지식(앎)과 사회(인간공동체)의 토대로서 역사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모든 바람의 종국적 지향은 하나, 즉 어떻게든 우리 시대에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여 다음 시대에는 전쟁과 죽임이 없는 인간세계를 만들자는 소망으로 모아진다. 인간에겐 영구 평안을 향한 소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에 역사를 주제로 다음 세대와 절실하게 대화하고 싶은 것이다.

수년 동안 개고, 수정, 추가를 거치느라 너무도 오래 출간을 기다려준 나남의 조상호 대표에게는 마음의 빛과 깊은 감사를 함께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책을 책임 편집하느라 늘 수고해 주는 방순영 편집장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이병무·김재호 편집자의 꼼꼼한 편집에도 감사를 드린다. 연구의 최종 정리과정에서 최근 연구와 자

료들을 수집·정리하고 참고문헌과 색인을 작성하느라 수고한 임지현·이희경 연구조교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연구의 마무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자료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지상현·조혁진·김민지 연구조교에게도 감사한다. 연구와 집필에 아빠를 빼앗긴 사랑하는 두 아들 헌민과 헌중에게 오직 기도하는 마음뿐이다.

2011년 3월

연세대 학술정보관 연구실에서

박영리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차례

- 서문 5
1. 자유와 평화 385
 2. 진보와 미래 394

제1 장 서론: 역사와 현실과 학문 17

1. 역사와 현실 17
2. 역사와 현실과 학문 25

제2 장 《해전사》, 광주항쟁, 인식의 전환 39

1. 광주항쟁과 한국전쟁 39
2.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등장과 의미 44
3. 자료와 도서해금, 그리고 항체형성 53
4. 시각과 이론의 전파와 확산: 번역 71

제3 장 연구의 시작, 시각의 분기 83

1. 한국전쟁의 초기 학문화 83
2. 체험과 이성: 리영희와 김학준 104
3. 민중운동과 이념주의 115
4. 최장집 · 하영선 · 유명익: ‘기층’, ‘국제’, 그리고
‘수정주의 이후’ 시야로부터의 접근 120

제 4 장 급진구조주의의 등장과 한계: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연구 · 129

1. 현대한국 연구와 《한국전쟁의 기원》 129
2. 탈냉전과 급진시각 139
3. 커밍스 연구의 한계와 대안모색 143

제 5 장 현실과 학문:

냉전해체, 북한위기, 민주화, 그리고 반성적 지양 163

1. 사회주의 붕괴, 북한파탄, 지양적 종합 163
2. 급진주의 이후의 문제군들 178

제 6 장 이성과 자유의 산물: 새 세대, 시각, 방법, 주제의 등장 (I) · 187

1. 이념을 넘어, 분야를 넘어: 새 세대, 새 주제의 분출 187
2. 정치, 군사, 남북관계, 국제, 종합 192
3. 사회, 계급, 민중, 기억, 종교 221

제 7 장 이성과 자유의 산물: 새 세대, 시각, 방법, 주제의 등장 (II) · 239

1. 경제: 두 가지 길, 내재적 발전, 토지개혁, 전후 변동 239
2. 역사학의 전환과 역사연구의 본령으로 256
3. 문학, 젠더, 법률, 미술 278

제 8 장 인간을 위해, 평화를 향해 (I) 291

1. 시민, 국가, 그리고 역사 291
2. 전후 최대의 공공역사기구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302

서론: 역사와 현실과 학문

제9 장 인간을 위해, 평화를 향해 (II) 331

1. 평화와 화해, 진실과 인간 331
2. 시각과 주제와 자료 345
3. 조망과 개입, 학문과 실천 353
4. 부분과 전체, 방법과 이론: 융합과 보편의 전제 360
5. 전달체계와 매개영역 374

제10 장 맺음말: 영혼의 독립으로 383

1. 자유와 평등 383
2. 진보와 미래 394

· 참고문헌 405

· 찾아보기 469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2

박명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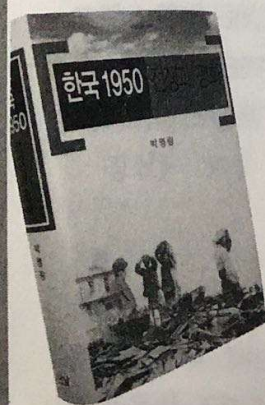


1권: 결정과 발발 · 2권: 기원과 원인

- 한국학을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극복함으로써 인문사회과학의 새로운 고전으로 남을 노작! —《한겨레》 '96. 7. 3
- 국내외 비밀문서 10만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섭렵, 북한의 내부명령서를 낱자 · 시간별로 추적하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 6·25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작! —《조선일보》 '96. 6. 21
- 남북대치라는 냉전구도에서 벗어나 6·25에 대한 기존의 전통주의 · 수정주의 논리를 엄밀한 사료 분석을 통해 극복한 책!
—《중앙일보》 '96. 6. 23 신국판 · 1권 값 20,000원 · 2권 38,000원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박명림 지음



현대한국에서 가장 격변적이었던 1950년.

‘6·25’에서 ‘1·4 후퇴’까지 남북, 좌우가 가장 격렬하고 잔인하게 대결했던 시기로, 세계의 모든 열강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이곳에서 쟁투하였다. 전쟁과 평화는 물론 정치, 국가, 군사전략, 리더십, 국제관계, 이데올로기, 학살, 도망 등 이 6개월은 측량할 수 없는 중력으로 한국현대사의 앞선 모든 것들을 빨아들여 압축시킨, 하나의 역사적 ‘블랙홀’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 관한 사실의 재구성을 통해 사건의 서사를 넘어 이 문제에 관한 세계 역사-정치학계의 이론과 해석의 문제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신국판 · 866면 · 값 38,000원

Tel: (031)955-4600
www.nanam.net **나남**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과거이해를 넘어 우리의 미래창조 능력과 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이념굴레에 이 전쟁의 이해를 가둔다면 우리는 자유와 진리가 넘실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정의로의 행진도 물론 불가능하다.

진보는 인간들의 고난에서 온다. 고난을 극복하려는 정신적 현실적 투쟁 속에 역사는 진보하게 된다. 미증유의 고난이었던 한국전쟁을 끌어안은 용기있는 고통으로서의 한국전쟁 연구는 하나의 고통이요 용기이다. 이때 지식인들이 그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 여기서 자신의 것이란 곧 모두의 것과 같은 뜻이다. 우리는 단지 한국전쟁에서의 슬픔과 비극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사의식에 비례하는 만큼의 연구깊이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한 사회가, 그러한 자기일체화를 향한 지식인들의 투쟁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상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성과 진리를 신뢰하며, 민중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질병과 처방을 밝혀 생명의 법칙을 제시하자. 그리하여 우리의 고통스런 과거 경험으로부터 대영혼과 대사상을 창출하고 그들 사이에 이성적 대화를 나누도록 하자.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는 더 인간적이고 더 아름답게 바뀌어갈 것이다.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TRUNG TÂM THÔNG TIN THƯ VIỆN



Mã sách: 070704324

값 25,000원



9 788930 085540

ISBN 978-89-300-8554-0

ISBN 978-89-300-8001-9 (세트)